



### 모두가 젊다

전진호 희곡집, 연극과인간, 2005

어느 날 내게 한 권의 희곡집이 배달되었다. 이미 고인이 된 전진호 희곡집인데, 생전에 그와 이웃했던 벗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책을 받아들자마자 단숨에 희곡집을 읽기 시작했다. 거의 다 읽어갈 무렵, 책을 만든 벗들이 초대장을 다시 내게 보냈다. “전진호, 추모의 저녁, 출판 기념 모임”.

2005년 3월 28일 오후 5시, 나는 모임 장소인 산울림 소극장엘 갔다. 그곳에는 연출가 임영웅, 채윤일, 김석만 선생, 소설가 조세희, 호영승 선생 등이 먼저 나와 계셨다. 그분들은 모두 나이를 잊은 젊은이들과 같았다. 나는 고 전진호 선생을 뵈는 적이 없다.

작가의 이웃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일련의 행사는 내가 처음으로 문학과 예술에 감염되었던 문학청년 시절을 떠올리게 했고, 희곡을 읽으면서 공연을 보러 극장을 기웃기웃하던 그 시절로 되돌려 놓았다. “그래, 이런 기분이었어. 젊은 날, 문학과 연극을 좋아했던 바가……그런 친구들과 놀던 때가…….”

나는 이런 말을 스스로 몇 번인가 했다. 요즘에 이런 행사는 문학과 연극 동네 안팎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속된 세월은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결마저 난삽하게 만들었다.

이 희곡집은 고 전진호 선생이 생전에 쓴 5개의 희곡과 작품과 작가에 관한 글들이 실려 있다. 5개의 희곡은 〈들개〉(1966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희곡 당선자), 〈밤과 같이 높은 벽〉(1967년, 국립극단 공연), 〈달나라와 딸꾹질〉(1972년, 여인극장 공연), 〈밤에만 나는 새〉(1979년, 극단 작업 공연) 등이다. 작가와 희곡에 관한 본격적인 글쓰기에 앞서, 나는 이 희곡집을 밀줄 치면서 읽었다. 작가의 의도가 이렇구나 하는 분석 대신 나는 희곡을 읽으면서 작가의 친구들이 왜 전진호라는 친구를 추모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것을 그가 쓴 희곡에서 찾아내고 싶었다. 작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나는 이렇게 화답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나는 희곡을 성큼 성큼 읽어가기 시작했다.

〈들개〉에 등장하는 한쪽 인물들은 모두 “스스로의 아픈 기억을 잊지 못한 채” 살고 있다. “지난날의 아픈 기억에 질질 끌려다니”(124쪽)는 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힘든 고통”(17쪽)이란 “어둠만이 죽음을 키우고 있는” 삶의 광경이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채 “어두운 방 속에 누워 막연하게 죽음을 기다리”(18쪽)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쪽 인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와 의미를, 쉽게 쓰러지지 않는 들개의 생리를 배”(19쪽)워 “사람이래 기리케 광광 나자빠디는 게 아”닌, “쉽게 넘어질 만큼 약”(21쪽)하지 않은 이들이다. 그들은 태어난 동네의 말투로 이렇게 말한다. “사람 목숨이래 질긴 거디, 끈질긴 거디……. 끈질긴 거디”(22쪽)라고.

작가 전진호는 이 두 부류의 인물들 사이에 있는 것 같다. 신춘문에 당선 소감에 쓴 것처럼 “끈질긴 집념을 갖고, 내일을 향” 하고자 한 그가 앞쪽 인물을 닮았다면 그를 추모하는 그의 이웃들은 뒤쪽 인물에 속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밤과 같이 높은 벽〉에서는 “아팠던 때는 지나갔지만, 그 아팠던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는” “아물지 않는 상처는 언제까지고 이품을 놓아준”(29쪽)다고 말하는, “영원한 상처”(32쪽)를 지닌 이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한 “잊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상처”(30쪽)를 지녔지만, “아픔은 나 혼자라도 충분히”(36쪽)라고 말한다. 고통은 최종적으로 “증오란 일시적인 감정의 불꽃, 그 불꽃 속에 저를 태우고 다른 이의 가슴을 고통으로 매우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한때의 미움은 누구나 갖는 것, 이해와 양보가 값진 의미를 남긴다는 것을 가르쳐주십시오”(75쪽)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곧 “모래와 물의 긴 인내”이고, “밤과 같이 높았던 벽”(114쪽)이다. 아아, 이제야 알겠다. 그의 작품이 “생명이 있는 것은 다시 소생하기 마련”(『인종자의 손』, 121쪽)인 것처럼 우리들 곁으로 다시 온바를. 책을 다 읽고 나서, 나는 작품과 작가를 추모하는 작가의 나이 든 벗들이 참으로 부러웠다.

모두가 젊다.

안치윤 | 호서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연극평론가